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7호 [루게 제24640호] 주체103(2014)년 8월 15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술로켓탄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고 사회주의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민족사적경사의 날인 조국해방 69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개발완성된 초정밀화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술로켓탄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술로켓탄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변인선동지, 박정천동지, 홍영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제2경제위원회와 제2자연과학원을 비롯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되는 전술로켓탄 시험발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락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이것은 또한 초정밀화된 전술로켓탄의 전투적성능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판철에서 미덥고 자랑스러운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전술로켓탄의 전투적성능을 높일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불타는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여러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새로 개발완성한 전술로켓탄의 기술적제원을 료해

하시고 시험발사명령을 내리시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각이한 란도에 서 전술로켓탄의 조종성이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다는것이 검증확인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술로켓탄 시험발사가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전술로켓탄 시험발사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려 주체적인 국방력강화 발전에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초정밀화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술로켓탄을 개발하고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 끌어 주신

높은 국방과학기술과제들을 제기하고 우리 혁명무력을 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 주신 크나큰 영광과 사랑을 받아안은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조업한 갈마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업한 갈마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건설을 발기하시고 명당자리에 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몸소 이름까지 지어주신 갈마식료공장이 드디어 조업하였다.

지난 6월 새로 건설한 갈마식료공장을 찾으시고 조업준비정형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물고기 가공기지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리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받고 현지로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갈마식료공장의 면모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완전히 일신시키였다.

갈마식료공장이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명란젓, 창난젓, 말린명태, 말린낙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이 쏟아져나오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합조종실, 1차가공실, 랭동진공실, 선별포장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조업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당에서 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영활동의 정보화, 콤퓨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고 물고기 가공으로부터 운반, 포장에 이

르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흐름식으로 꾸려놓았으며 생산현장이 혼잡을데없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갈마식료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료보장체계를 바로세우는 문제,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 맛과 질에 있어서 갈마식료공장을 대표할수 있는 특점지표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문제, 포장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공장관리운영을 짜고드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 꾸려진 과학기술지식보급실, 회의실, 합숙휴게실을 돌아보시면서 종업원들이 선진기술을 깊이 습득할수 있게 되었으며 훌륭한 생활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갈마식료공장을 지난번에 돌아볼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정말 잘 마감했다고, 공장안은 궁전처럼, 공장밖은 공원같이 꾸렸다고, 불수룩 아담하고 정갈하여 마치 휴양소와 같은 공장, 멋쟁이 공장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갈마식료공장이 짧은 기간에 새롭게

전변된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결사관철하는것을 제철화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군인건설자들을 보내주시어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설수 있었다고 하면서 공장종업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에게 원수님께서 물고기가 공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

에게 안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갈마식료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거둬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며 비약의 한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혁명선렬들의 피가 스민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

그날의 빨찌산이야기 오늘도 우리의 심장 울려준다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한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구절구절을 더듬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되는 습관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혁명화의 중요한 락시이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 누구나 사랑하며 즐겨읽는 한편의 시가 있다. 1947년에 혁명시인 조기천에 의하여 창작완성되어 오늘까지 널리 읽히고있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이다.

18살 꽃나이처럼은 영생하는 리수복영웅도 이 시를 의 무어 원수처럼의 싸움터들을 누벼나왔고 전세대들도 이 시와 함께 빈터에서 사회주의 락원을 일떠세웠다. 우리 역시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이 시를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로 삼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한창 달려가고있다.

하더라도 이 시의 감화력과 견인력은 어디에 있기에 그토록 오랜 세월 인민의 심장을 강하게 뚫어주고 끊임없는 혁명열과 투쟁열을 안겨주었는것인가? 우리 앞선 선조들의 령도따라 시의 구절구절을 읊어보며 그 대답을 찾는다.

산이 조종의 산이 말하라-해방된 이 땅에서 누가 인민의 취머 싸우느냐? 누가 민전의 취머에 섰느냐? ...

《한눈도 남기지 말라!》
그이는 제쳐 부르짖었다
이름만 들어도
삼도애적이 치며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이는 장백을 뒤라려라하는
태산을 주름잡아 한손에 넣고
동서에 반격!
천리외의 대령도 단숨에 넘나
드니
축지법을 쓴다고-
북편에 새별 하나이 솟아
암록의 출기출기
그 유려한 해방을 베풀노니
그 유려한 해방의 장수 님과
백두산두에서 우리려 떠드는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능숙한 정치공작을 벌려 나가는 철조와 영남이, 꽃봉이의 형상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 시기 유격대정치공작원들의 훌륭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특히 것처럼 순박한 꽃봉이가 불의의 정황속에서 예순순사를 따돌리는 장면이야말로 이 나라의 평범한 아들딸들이 혁명의 길에서 어떻게 성장하였는가에 대한 뚜렷한 대답으로 되고있다.

제4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우리 인민들이 널리 알려진 약수동사건장면이다.

《소는 어디서 가져왔소?》
대장의 묻는 말
《삼밭골 목재소어구에서...》
소대장 순신의 대답
대장은 골짜기를 보았다-
동전을 단 골짜기
수놓은 골짜기...아내의 숨겨
독한 코뚜레-민족의 이색-
어김없이 일본소는 아니다
...

《가마솥의 물은 끓다가도 없어진다-
원인이 있거니-
하나 내물은 대하를 이룬다
동무들!
우리는 왜가 되려나 바다가 되려나
우리의 근간도 민족속에
우리의 힘도 민족속에 있다!
민중과 혈연을 한가지한
빨찌산인들 우리 잊었는가?》
...
명령을 어진 서순이를 돌려
싸고 엮어진 이 부분에서는
어버리수령님께서 어떻게 조선
인민혁명군을 진정한 인민의 군

대로 강화발전시켜오실수 있었는가를 감명깊게 서술하였다. 주인을 찾아 소값을 돌려주려는 그의 명령에서도 항일의 나날 발에서 갠 몇달의 감자값을 받머에 놓아두고야야 길을 떠나던 유격대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어여온다.

참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존재할수 없다는 사상이 힘있게 맥박치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인민제일주의의 구호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된다.

제5장에서는 정찰자료를 가지고 사령부로부터 가던 도중 적의 추격에 영남이 들은 철조의 비통한 심정과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는 그의 체첩체첩을 펼쳐 보고하였다.

...
장백의 높고낮은 고개고개에
이 무덤이 첫 무덤 아난줄이야
누가 어찌 모르랴!
침략의 피서린 밤이
이 나라에 청침 걸치었거니
세살을 위해 싸우다 죽은이
해여보라! 몇만이나 되는고?
어느 고개 어느 골짜기에
어느 나무 어느 들에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혔는고?
...

은 나라를 격정과 흥분의 도가니로 옮겨 하였던것이다. 보천보의 불길, 그것은 정녕 주저앉았던 인민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혁명의 불길이였으며 최정세를 일삼던 일제원수들에게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공포와 진통을 안겨준 해방전의 불길이었다.

시에서는 마감으로 백두산과 시인의 광민적인 시적대화형상을 통하여 이렇게 격정적으로 토로하였다.

...
《너, 세계야 들오라!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려라!
내 천만년 갈아온 절벽의
의지!
내 세세로 모은 힘 가다듬어
은갖 불의를 죽여부시고
내 나라를
민중의 나라를 세우려라!
내 뿌리와 같이 깊게
내 바위와 같이 튼튼케
내 불길과 같이 높게
내 천지와 같이 빛나게
세우려라-
자유와 나라!
독립의 나라!
노래 《조국의 진달래》는
주제 57(1968)년에 창작되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는 답사행군대원들이 혁명의 선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못가에 이르면 누구나 마음속에 떠올리는 잊지 못할 한편의 노래가 있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력사상 류례없는 최대의 애국투쟁이였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애의 최고정화입니다.》

삼지연못가에 피어난 진달래꽃을 품어안고 감격을 금치 못하는 항일의 내내된 조각군상을 바라보노라면 저도모르게 흘러나오는 노래 《조국의 진달래》.

조국전군의 길에서 진달래꽃에 얼굴을 묻고 조국의 향기를 한껏 들이켜 항일의 녀투사들이 감격에 겨워 울고있던 력사의 화폭도 방불하게 떠오른다. 노래 《조국의 진달래》는 주제 57(1968)년에 창작되었다.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1960년대에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와 같은 노래들이 혁명의 계승자들이 혁명정신과 아름다운 녀성을 상징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때 일부 편협한 사람들은 노래 《조국의 진달래》가 혁명전통을 진달래에 비유하면서 왜곡화하였고 비판하면서 제목자체도 혁명적인것과 거리가 멀어 추상적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 《조국의 진달래》에서 진달래는 그자체가 혁명전통이라는것이 아니라 주제 28(1939)년

5월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무산지구에 진출할 당시의 력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생활,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것이 형상적발견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창작한 창작자들신도 미처 헤아릴수 없었던 명목의 진정한 가치를 보석처럼 빛내여주시었다.

참으로 이것은 사상적인것과 형상적인것과의 결합, 철학적인것과 생활적인것과의 통일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그리하여 혁명전투주체의 주요창작에서는 명목의 가치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생겨나게 되었다.

진달래에 깃든 수많은 사연과 깊은 뜻은 백두의 혁명정신의 위대한 계승의 력사와 더불어 보다 심오하고 풍부해지고있으며 명목의 의미 또한 비장히 커지고있다.

그년의 겨울을 물리치고 혁명의 새봄을 불러온 조선 혁명의 력사는 백두산의 진달래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붉고 아름다우며 그리도 억센 꽃으로 계승자들의 심장속에 피고 또 피는가를 혁명의 준엄한 내내들을 통하여 뚜렷이 증명하고있다.

가장 성스러운 혁명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빨찌산의 꽃, 백두의 참바람을 이겨내고 선군혁명군령의 불을 남김없이 불어오는 무성하는 진달래꽃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명목 《조국의 진달래》와 더불어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혁명의 정서, 백두산이 안겨주는 혁명의 서정성이 아니라.

본사기자 한 경 철

《조국의 진달래》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끝없이 싸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꽃길은 이해의 8월에 도대선산 혁명전적지를 찾는 사람들의 물결은 그칠새 없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 층 근로자들 그리고 투사들의 반신상앞에 꽃무늬를 정히 놓으며 그들의 이름을 조용히 외워보는 나어린 소년단원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우리의 눈앞에 문득 한 항일혁명투사의 반신상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속삭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비껴왔다.

《동무들, 이 투사동지는 조국 해방을 하우 앞두고 희생되었어.》
그 투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뜨겁게 추켜하시었던 전령병 김봉성동지였다.

해방을 하우 앞두고 마친 그의 생을 두고 선듯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느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쓰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글줄들이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투사의 반신상앞에서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
오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이 선혈로 더글렀
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울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발길 더듬어
백두의 밀밭 찾았더냐?
가랑잎이 홑잡도 그리웠고
사자를 문턱인듯 넘나드니 그
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 래양공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일 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 래양공전을 찾아 14일 아나톨리아 유가족과 에스빠냐 백두산소조 책임자, 로씨야-조선반도 종단자동차행진단 꽃바구니 진정,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14일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성동포가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우시우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접견

수셀로 발방 유도요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13일 대통령궁전에서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정치, 법률 및 안전보장, 경제조정, 국가비상, 외무상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특히 로씨야-조선반도 종단자동차행진단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 보였다.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방목에 글을 남기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당선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주요 위도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자카르타시청에서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적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요 위도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주요 위도도 대통령 당선자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적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요 위도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주요 위도도 대통령 당선자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공화국영웅 안동수 유가족과 에스빠냐 백두산소조 책임자, 로씨야-조선반도 종단자동차행진단 꽃바구니 진정,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 69돐에 즈음하여 14일 로씨야-조선반도 종단자동차행진단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 보였다.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방목에 글을 남기었다.

적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요 위도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주요 위도도 대통령 당선자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상과 인도네시아외무상 회담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과 라빈 호만타드 마르메르리나 나델레가 인도네시아외무상의 회담이 13일 외무성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싱가포르 도착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하는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3일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싱가포르외무부 동북아시아총국 부총국장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영국레이버당 전국정책 연단 성원일행 도착

글린 포드 영국계 14일 비행기로 평양 이비당 전국정책에 도착하였다.

연단 성원과 일행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싱가포르 도착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하는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3일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싱가포르외무부 동북아시아총국 부총국장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에스빠냐 백두산 소조 책임자 도착

마누엘 가르 14일 비행기로 씨야 보마야 에 평양에 도착하였다.

소조 책임자



에스빠냐 백두산 소조 책임자

